



인터뷰 강주 명성 스님 “생활이 곧 수행, 모든 일 참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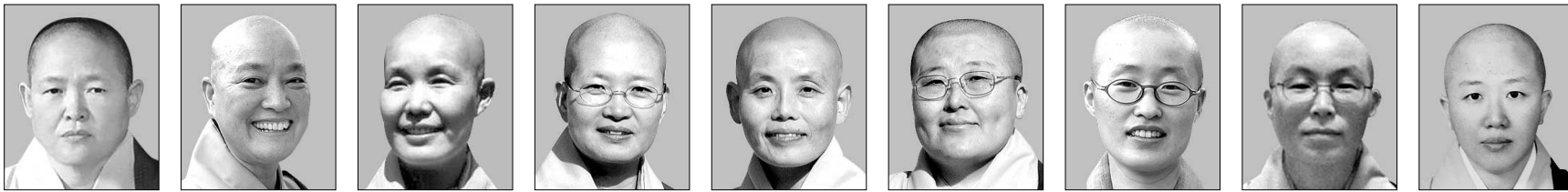
“수행과 교육이 둘이 아닙니다. 수행이 잘 되면 교육이 잘되고, 교육을 잘 받으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맡고 있는 명성 스님은 세수 70(1931생)이 훌쩍 넘은 요즘에도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자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다.

운문사 화주이며, 학장으로 승가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는 스님은 늘 학인들에게 ‘생활이 곧 수행’임을 강조한다. 생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부처님 뜻에 입각해서 생활하라’는 ‘즉사이도(即事而道)’를 강조한다. 공양간임을 하건 밥에서 풀을 뽑건, 공부를 하건 어느 것 하나 소중하

지 않은 것이 없고 수행 아님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건 ‘잡다워라’는 말이다.
 운문사 강원원 배출한 동문들이 사회복지도 힘쓰고 병원, 유치원, 복지관 등에서 환자포교, 어린이 포교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스님은 1970년부터 운문사

강단에 섰다.
 30여년을 모시고 살았다는 학감 일진 스님은 “명성스님은 학인 지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시종일관 철저하며 한결같은 분이지만, 들꽃이 피는 것 같은 아주 작은 일에도 신비함과 신선한 충격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곧은 학풍 속 내·외전 차별없이 탁마



강사 흥륜 스님, 학감 일진 스님, 강사 진광 스님, 강사 세등 스님, 강사 영덕 스님, 강사 운산 스님, 강사 은광 스님, 중강 법장 스님, 중강 명법 스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호랑이가 앉은 모습과 흡사하다는 호거산(虎窟山) 아래 넓은 장군평 자락에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교육도량 운문사가 자리하고 있다. 넓고 정갈한 도량에는 스님들의 경읽는 소리와 울려하는 스님들의 부지런한 움직임이 살아있는 부처님 법문을 전한다.

560년(신라 진흥왕 21) 창건된 운문사는 1958년 불교정화운동 이후 금광 스님이 초대 주지로 취임하면서 비구니 전문강원이 개설되었다. 현재 250명의 학인들이 입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敎海)의 학훈 아래 강주 명성 스님, 학감 일진 스님, 강사 흥륜, 진광, 세등, 영덕, 운산, 은광 스님, 중강 법장, 명법 스님으로부터 경학을 수학하고, 계율을 실천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내전과 영어, 명자, 염불, 꽃꽂이, 피아노, 서예, 사군자, 컴퓨터, 요가 등 기본소양을 익히는 외전으로 나뉜다. 낮시간에 강의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저녁에 학인들끼리 논쟁을 하며, 논쟁 내용을 토대로 다음날 아침 수업시간에 논쟁법칙과 중강이 강사스님 앞에 발표하고 강사스님이 학인들에게 질문과 강의를 하는 전통방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서관에는 화엄경을 비롯한 금강경, 능엄경 등 목판본 교재와 고서가 5000 여권, 한글 대장경 외 10종류의 대장경과 불교관련도서, 일반문과, 각종 원서 등 1만여 권의 책이 소장돼 있다.
 운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행사 중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④ 운문사 강원 (www.urnunsa.or.kr)



운문사 강원 학인들은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명성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정규를 철저히 실천한다.

하나가 대교과 학인들의 탁발의식과 차례법문이 있다. 대교과 학인들은 매년 2월 초하루에 대구, 부산 등 도시에서 나가 행하는 탁발의식을 통해 아집과 아만을 내려놓고 인욕하는 마음을 다진다. 탁발금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250명 학인 뿐 아니라 학생, 학감을 비롯한 모든 강사스님 앞에서 하는 차례법문은 졸업 전에 누구나 치러야하는 통과시험으로 수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연습이요, 불법의 바퀴를 힘차

게 굴러는 연습한 자리이다.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는 학장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정규를 철저히 실천하는 학인들의 하루일과는 새벽 3시 도량성, 예불, 108참회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간경, 저녁 스님들 간의 논쟁 등 학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사이에 울며먹는다.
 운문사의 늦가을 김장울림은 특히 장관이

다. 학인뿐만 아니라 학장스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스님들까지도 동참하는 울림시간은 세삼만들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생활과 경전공부가 둘 아님을 터득하는 장이 된다.

운문사에는 1997년 비구니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가대학원이 개설됐으며, 운문사 모든 강사스님들은 모두 대학원 과정에서 함께 연구한다. 대학원에서는 그동안 경전 연구와 해독·재검토 등을 통해 열반경 화엄학개론, 치문, 사미율의 등 다수의 책을 재편집했다.

운문사 강원원 배출한 인재

운문사는 지금까지 39회 1,354명의 동문 스님들을 배출했으며, 사회복지, 포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문회장은 법수(반야유치원 원장·14회) 스님이며 동문들의 친목과 회합에 앞장서고 있다. 주요 동문으로는 성정(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정(법령사 강원 학감), 정관(공주 금관복지관 관장), 진영(BBS불교방송 차관장의 선출), 계환(동국대 교수), 보광(불광한의원 원장), 정은(보령 세원사 주지), 정률(BTN 찬불가 지도), 지홍(중앙아시아병원 법사), 지호(동국대 교수) 스님 등이 있으며 현 교직자스님 모두가 운문사 강원출신들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청도=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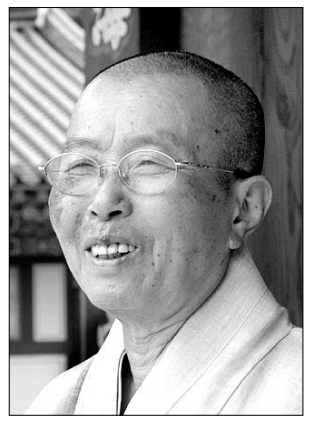
한국의 비구니 스님 <18> 설호 스님

전국 선방 돌며 선수행

충남 유구 동해사(東海寺)에 도착했을 때 설호(72·사진) 스님은 낡은 앉은뱅이 미상을 들고 계셨다. 평생 남이 지어놓은 옷을 사서 입는 법 없었었다는 스님은 자투리 조각들을 이어 여름옷을 만들고 있었다.

“평생을 일만 허구 살았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늙은이를 취재 해서 뭇한다구...”라며 손사래를 치던 스님은 “점심에 보리밥 해놓았으니 먹고 가라”고 하셨다. 70평생을 엄격한 수행납자로 살아온 비구니 ‘육화문중’의 최고 어른스님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너무나 소박하고 인자한 모습이었다.

스님은 1954년 갑오년에 개심사로 출가해 이듬해 동학사 비구니 강원으로 갔다. 전쟁이 끝나고 종단이 정화로 어수선하던 시절이었다. 어렵고 힘든 시절 공부보다 율력이야 탁발하러 다니는 일이 더 많았다. 교재가 없어 누가 버리고 간 <초발심자경문>을 얻었는데, 앞장이 다 뜯겨 나가 ‘귀



스님은 96년부터 시작했는데 덕분에 절이 황폐해졌다며 좋아하셨다. 절 어디에도 스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 출고 뛰으신다. 절 입구에 만발한 자귀나무 꽃길을 직접 만든 스님은 매년 도량 안팎에 온갖 나무를 심으셨다.
 “풀 뽑는 행위 하나도 마음을 다스리고 경계를 끊는 일”이라는 스님은 말없이 실천으로 수행의 본을 보여주신다.

72세에도 직접 옷 지어 입어 도량 안팎 곳곳은 앞장서 처리

6'부터 읽었다. 자경문을 다보고 <치문>을 배우는데 치문교재가 없어 밤이면 어른스님들 몰래 등잔을 켜놓고 남의 것을 베껴 읽었다.

다. 따로 수행처 정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모든 곳이 수행처라는 생각으로 각지의 선방을 찾아다니며 수행에만 뜻을 두고 싶었던 스님이 상좌인 주지 석문 스님과 함께 동해사를 장건한 것은 지난 1989년이다. 유구 동해사의 원래 지명은 와룡동(臥龍洞). 무학대사가 이곳을 지나다 용이 누워 있으면 승천을 못한다하여 용이 물에서 살수 있도록 동해 이름을 동해(東海)로 고쳐 지었다고 한다.

스님은 원래 불사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였다. 다만 50평, 30평 등 조각 조각 늘려왔던 땅을 하나 둘 사들이는 것이 지금은 4000평이 넘는 넉넉한 절터가 됐다. 대웅전 불

스님은 매년 방학 때마다 한문 학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팔이 빠져라 글씨를 써가며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쳤던 덕분인지 스님에게 한자를 배운 아이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가 학자가 됐다. 지금은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아이들 없다.

스님은 요즘 여자들이 3평을 절에 데려다 키운다.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2명이 스님의 품으로 왔다. 초등학교 5학년 경림이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한다며 자랑이 대단했다. 경림이는 한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한자 2급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스님이 키워 세상에 내보내 제물을 하게 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동해사 주지 석문 스님은 “은 사스님은 평소에도 누구를 나무라거나 큰소리로 꾸짖는 법이 없지만 수행에 게으른 상좌들이나 젊은 스님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어른”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古新堂 활성생활터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활성생활터란?

황토와 천연목재 추출 섬유질 및 물만을 사용하여 제조된 활성생활토 반죽은 시공 후 자연건조공정을 거치면서 황토의 복층 구조에 존재하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황토 원래의 기능성을 완전히 회복한다. 활성생활토 반죽은 적정 점착력과 황토 반죽으로서 시공성이 매우 용이하며 미려한 표면과 적절한 구조강도를 갖춘 실내적용 특수내장재이다.

활성생활토의 기능

원칙외선 방출, 세포조직을 활성화하여 노화방지, 습도 조절 능력이 탁월하다. (동전기 습도 능력 탁월) 신진대사 촉진, 민성피로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 천연소재를 이용한 활성생활토는 탈취능력이 탁월

황토가 좋은 점으로써 또한 탈취성을 들 수가 있는데, 시멘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탈취력으로 실내공간의 악취 등을 없애주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 본 재료의 염도나이에 대한 탈취능력은 초기농도 179ppm에서 120분 경과후 100ppm까지 농도가 감소하였다.

이런 분들에게 활성생활토 제품을...

- 어린이 아토피성 피부염
- 수험생의 수면부족 및 체력유지
- 투통환자
- 노약자, 산모, 알레르기 환자
- 숙취감 해소

활성 생활토의 효능

-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항균효과
- 항균·방충 및 냄새 제거 효과
- 원적외선에 의한 혈액순환 촉진(바닥재)
- 습도조절 및 단열보온 기능
- 유해전자파 차단

제품 특성 및 시공방법

- 황토, 나무 및 물을 주성분으로 제조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내장재
- 우수한 탈취 능력, 습도조절능력, 보온, 단열, 방충능력이 탁월하고 원적외선 방출 능력이 있는 제품
- 적정 점도의 반죽 상태로 시공이 편리하고 특히 건조 후 표면 갈라짐이 없는 제품
- 용기의 비닐을 제거한 후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 이때 약간의 물을 첨가하여 적도 조절 가능
- 2~3mm 두께로 초벌 미장 시공
- 2~3일 자연 통풍 건조
- 충분히 건조 후 장판 및 도배

활성생활토시공

- 업선된 생(生)황토에 나무에서 얻어진 천연성분과 순수한 물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천연 건축용 내장 마감재
- 갈라져 쉽게 떨어져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황토, 이제는 도배보다 쉽고 빠르게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공가능
- 콘크리트, 석고보드, 합판 등 구조재 종류와 관계없이 바닥 벽체 천정에 미장 혹은 도장(칠)가능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개선제 시스템시공
 세계최초 “通風 되며 防水” 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대천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비B/D 4층 대표전화 042)2427-007 / 011-9413-6000 / 팩스 042)2427-009
 http://www.ks7700.co.kr E-mail: ceo@ks7700.co.kr

제기경인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인천불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산사 『경인불교대학』으로 오십시오.

강의내용

사찰예절, 찬불가, 예불문, 부처님의 생애,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정토사상, 선사상, 참선실수, 불교와 사회복지, 다도강좌, 유명명사초청특강

주요 강좌 교수진

과 목	교 수 진	비 고
불교기초교리	차치석교수	동국대 교수
선사상	법신 큰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정토사상	정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반야심경	종연 스님	경인불교대 학장
불교와 사회복지	보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참선실수	지록 스님	승광사 스님

- ◆제출서류 : 입학원서(반영암만 사진 2매)
- ◆등록금 : 입학금 4만원 / 월비료 1만원(학행회비 포함)
- ◆학력 및 연령 제한없음
- ◆모집기간 : 2004년 7월 19일부터 300명 선착순(주간/야간)
- ◆개강일시 : 2004년 10월 7일(오전 11시)
- ◆특전 : 졸업후 경건한 입학자격부여 / 조계종 포교사고시 응시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승학산 수미정사(인천향교뒷산)

경인 불 교 대 학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252-3
 접수처: TEL 032)427-8400
 FAX 032)422-8401
 www.omnuri.org

전쟁종식/남북평화통일/전법도량발원 일일삼천배 백일간 용맹정진

보살의 성원은 끝이 없습니다. 겨레가는 두 영혼에게 간과 신장을 떼서 주시고 세 생명의 빛을 주신 도우 스님께서 골수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관 건립기금을 마련하여 병든 자들과 함께 하고자 원을 세운 이 거룩한 불사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입 제 : 불기 2548년 7월 31일(음 6월15일)
- ◆회 향 : 불기 2548년 11월 7일(음 9월25일)
- ◆삼천배 정진시간 : 새벽 04시 ~ 07시
 오후 2시 ~ 5시30분
- ◆동참금 : 오십만원
- ◆복지관건립후원계좌 : 100321-01-000974 우체국
- ◆예금주 : 수미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경인불교대학 수미정사